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 2:19-20]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同役者)이었다.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자이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고 생각과 정신을 같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다. 야모스 3: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同行)하겠으며.”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 곧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 참된 일꾼은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들은 많으나 충성된 일꾼은 드문 것 같다.

[21-24절] [이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본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도 없는 귀한 동역자인 이유를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성도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도키메 dokimē)는 ‘시험된 인품, 증명된 인품’이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충성됨과 신실함이 증명되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진실한 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

하였지만, 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디모데이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기를 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또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자이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형제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한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의 전도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며, 특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그러하다.

군인들은 전쟁 때를 위하여 잘 훈련되어야 한다. 성도들의 훈련은 성경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생활이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훈련과 죽음을 각오한 정신이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죽음의 싸움터에도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소식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심히 근심하였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심령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

들을 위한 이런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육신은 참으로 약하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주셨던 병 고침의 은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사람의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고치지 못할 병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14-16에서 이렇게 교훈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병들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실수나 부족이나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의약적 치료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열심히, eagerly(NASB), eager(NIV)]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자 열심히 권하여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봄으로써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으로 그들이 상심할까 봐 염려했던 바울의 근심도 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29절] 이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부탁한다.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은 마지못해 하는 영접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오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접하

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만 국한해 말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한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군대에서는 좋은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일 그런 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바른 복음 전파의 계승과 충실한 목양 사역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지고 변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런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병에 걸렸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는 참으로 후대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 봉사의 모범이 되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오늘날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하신다. 무엇이 충성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대신에 자기 일을 구할 때 자기 일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는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증명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좋은 성도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군서된 자’라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풍조이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을 가리킨 것 같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우

리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런 충성된 종들과 일꾼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0:40, 42),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주일오후설교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2:1-3]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그랍손[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케크메카스[피곤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보내진 각 편지는 그 교회의 사자, 즉 목사에게 보내졌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며 장로들은 협력한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며 목사가 잘못 되면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는 목사를 세우실 능력도, 폐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므로 자기의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일을 아뢰며 잠잠히 그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사의 행위와 수고와 그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다른 이의 중심을 다 모르나, 주께서는 아신다. 특히 에베소 교회의 목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은 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요 낙심하기 쉬운 일이지만, 그는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잘 참고 피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의 선하고 충성된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다.

[4-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의 과거에 잘한 일도 인정하시지만, 현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책망하신다. 그의 문제점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사명자로서 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참고 충성했으나, 지금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충성을 버렸다는 말이다. 누구든지 지금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함이 없다면 주의 지적과 책망을 피할 수 없다.

주께서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주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 그를 구원한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뿐이다.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행 11:18)이며 그것이 구원이다.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눅 13:3, 5), 곧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회개를 한 자도 어떤 구체적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로부터 돌아켜야 한다. 이런 회개는 반복적이다.

주께서는 그에게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교회, 그러나 그 도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죄를 범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과 같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이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는 아직도 선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었다. 니콜라 당은 14-15절에 있는 대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허용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하였던 것 같다. 주께서는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다. 주의 참된 종들은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들에게, 즉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사지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 많아져야 한다.

또 주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긴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죄악된 풍조들이 많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하여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며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긴다는 말은 죄 짓지 않고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한다는 말이고, 진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는 자, 곧 죄에 지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지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일서 5:4,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벧후 1:5, 1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고 수고하고 오래 참고 피곤해지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몰리주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선행과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처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가졌던 사랑과 각오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현재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일들에 항상 힘써야 한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반복해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버려야 하고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조를 배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시켜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자들은 다 이길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힘써야 한다.

수요일 설교 땅을 완전히 멸하심

[습 1:1-18]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 . .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며 세상에서 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그는 이 방종교인들, 위상숭배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배교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며 또 음란하고 강포하며 거짓되고 탐욕적인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가게시고 참되신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그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며 이 세상에서 평안과 형통과 승리의 길이며 또한 영생의 길이다.

셋째로, 우리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돈은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책 안내 전화: 02-334-8291

- 요한 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 예레미야 및 애가서 강해. 2판. 359쪽.